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④	5.	⑤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④	14.	①	15.	⑤	16.	⑤
17.	②	18.	④	19.	④	20.	③	21.	①	22.	①	23.	③	24.	②
25.	⑤	26.	②	27.	③	28.	①	29.	③	30.	④	31.	④	32.	③
33.	②	34.	①	35.	④	36.	②	37.	②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①	43.	①	44.	③	45.	②	46.	②	47.	④	48.	⑤
49.	④	50.	⑤	51.	③	52.	③	53.	④	54.	①	55.	①	56.	⑤
57.	①	58.	②	59.	⑤	60.	⑤								

[듣기 대본]

1.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조선 시대에 허조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 고요한 밤에 별채에 앉아 독서를 즐기던 허조 선생께서는 이런저런 잡념이 생기자 책을 덮고는 책상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감은 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 때 검은 복면을 한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방문 앞에 온 도둑은, 책상 앞에 앉은 선생의 그림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 여차하면 달아날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그림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그제서야 안심하고는 유유히 집안을 뒤져 온갖 귀한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 도둑이 든 사실을 안 가족들이 선생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님, 도둑이 든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 헛기침이라도 하셔서 도둑을 물러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소리쳐서 하인들을 부르셨다면 도둑을 잡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값진 재물을 잃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와 같은 가족들의 원망에 선생은 오히려 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때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무서운 마음 도둑과 싸우고 있었느니라. 그러니 어느 틈에 하찮은 바깥의 도둑에 신경을 쓸 겨를이 있었겠느냐?"

1. [출제 의도] 발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추리하기

허조 선생의 마지막 발화에 드러난 '바깥의 도둑'은 하찮은 재물을 훔쳐 가는 도둑에 불과하지만, '무서운 마음 도둑'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즉 사색을 방해하는 잡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 수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준다.

2. 이번에는 국어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답지 내용도 방송으로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오늘은 광고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광고가 많이 나오죠?

학 생 : 네. 그런데 어떤 땐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선생님 : 맞아요, 하지만 광고를 잘 들으면 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어요.

학 생 : 광고가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구요?

선생님 : 물론이죠. 광고를 잘 들어 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공부한 문학적 표현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고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다 보니 함축성이 강한 문학적 표현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학 생 : 비유 같은 거 말인가요?

선생님 :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학 생 : 네.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 그렇죠. 비유는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광고에서도 그런 비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건 비유가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준비해 온 다섯 개의 광고를 들어 보면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광고가 어느 것인지 골라 보세요. 첫 번째 광고는 시계 광고예요. (사이) <시계는 시간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는 당신의 품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이) 이번에는 신문 광고예요. (사이) <텔레비전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신문은 재미있고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사람은 재미있고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사이) 이번에는 자동차 광고예요. (사이) <**아주** 놀라운 속도, **아주** 놀라운 가격, **아주** 자동차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사이) 이번에는 아파트 광고예요. (사이) <24시간 쾌속! 365일 쾌청! 언제나 쾌적한 주거 환경, 다사랑 아파트가 보장합니다> (사이) 마지막으로 와이셔츠 광고예요.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장보석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면 저는 제일 셔츠를 입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돋보이게 하니까요.>

2. [출제 의도] 문학적 표현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선생님은 광고의 언어에 문학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로 '비유'를 들고 그것이 사용된 광고를 찾도록 하고 있다. ②를 보면 텔레비전과 신문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③ 자동차 회사 이름인 '아주'를 부사로도 사용하여 동음이의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④ 같은 음운을 처음에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유명인을 통해 상품의 특징을 알리고 있다.

3. 이번에는 '사상의학'에 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백 년 전 이제마 선생이 창안한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하여 치료와 건강 관리의 지표로 삼은 전통 의학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체질의 신체적 특징을, 다소 과장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체질인 태양인입니다. 이들은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뚱뚱하지 않은 편이죠. 상체가 발달하고 목덜미가 굵으며, 머리가 큰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작아서 바지를 입으면 옷맵시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소양인을 그린 것인데요, 이들은 가슴이 넓고 발달한 반면에 하체가 다소 부실합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짧은 사람이 많으며 걸음걸이가 대체로 빠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열이 많아서 더위에 빨리 지치는 체질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그림은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체질인 태음인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골격이 튼실하고 체격이 크지만, 뚱뚱하며 땀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땀이 많아 겨울에 식사를 할 때도 땀을 흘리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소음인을 그린 것인데요, 이들은 전반적으로 체격이 작습니다. 상체가 약하지만 하체가 건실해서 잘 걷는 편입니다.

3. [출제 의도] 강연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강연자는 그림을 이용하여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순서로 그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태양인과 소양인은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가 작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양인은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목덜미가 굵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A가 태양인, D가 소양인의 그림이 된다. 태음인은 체격이 크고 뚱뚱하며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였으므로 B의 그림이, 소음인은 체격이 작고 상체가 약하지만 하체가 건실하다고 하였으니 C의 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4. 이번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

십시오.

앵커 : 정부는 오늘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특별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기자 : 네, 무엇보다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각종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10여 킬로미터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수도권의 배출량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다섯 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요.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김 기자 : 대표적인 것으로, 배출 허용 총량제가 도입됩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총량이 미리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자치 단체나 사업장은 정해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지키기 위해서 배출 방지 시설을 하거나 배출 감소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기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앵커 :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 기자 :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대책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 관계가 엇갈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출제 의도] 뉴스에 언급된 정보 파악하기

이 뉴스에서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 오염 상태로 말미암아 환경부가 특별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과 그 속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 이를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례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5 ~ 6]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지난 6월에 끝난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열광적인 응원에 대해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월드컵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민족 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가 :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나 민족의 존재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국가 대항으로 겨루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합심해서 자국 팀을 응원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다른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강한 민족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식이 응원의 열기를 더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열광적인 응원의 모습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이번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열광적 응원은 민족 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민족 의식이라고 하면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응원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열광적 응원에는 민족 의식을 놀이와 게임처럼 즐기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스타크래프트나 대중 가수에 열광하듯 대한민국과 축구에 열광했던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소리를 지를 때는 내가 꼭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것은 안 하잖습니까? 그저 좋으니까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도 경기의 결과보다는 경기 그 자체를 즐기고, 이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이번 월드컵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민족 의식이 강하게 부각되는 월드컵을 하나의 놀이로 즐겼다는 점이 이번 월드컵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 [출제 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진행자는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시키면서 '월드컵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민족 의식과 관련이 깊다.', '민족 의식이라고 하면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이번 우리 국민이 보인 응원 모습은 좀 달랐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이끌어 내고 있다.

6. [출제 의도] 대담의 핵심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전문가는 마지막 발언에서, 우리 국민의 열광적 응원이 기본적으로는 민족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민족 의식을 놀이나 게임처럼 즐겼다는 점이 과거와 달랐으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의 결과나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경기 자체를 하나의 축제로 즐기는 모습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문양의 페이스페인팅을 한 모습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제시된 사진에 어울리는 문구는 민족 의식만을 내세워 경기의 승리에 집착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팀을 응원하면서도 그 응원 자체를 즐겁게 즐겨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7. [출제 의도] 그림을 바탕으로 연상하기

주어진 그림은 '할머니국밥'의 원조임을 자처하는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명성을 얻은 '할머니국밥'이라는 상호에 기대 손님을 끌어보려는 식당들이 늘어선 것이다. 자기 식당만의 독특한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이 이룬 명성에 의지하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어느 식당이 진짜 할머니국밥의 원조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①②③⑤번과 같은 세태를 풍자할 수 있으나, 집단 이기주의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④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한 풍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8. [출제 의도]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 과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주어진 내용 구조도는 '인터넷 게임 자제 촉구'를 주제로 한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⑤에서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할 때 어울리는 내용이다.

9. [출제 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의심이'의 문제 제기에 대해 '투덜이'는 공약은 형식일 뿐이라는 부정적 생각과, 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 표 던지면 된다는 방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조건> 2로 보아 '희망이'의 글은 공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거에 임하는 적극적 태도를 담고 있어야 하며, <조건> 1로 보아 이상의 실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건> 3으로 보아 내용에 맞는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해야 한다. ②에서 공약은 실현 가능한 이상이고, 모두 힘을 모으면 공약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은 <조건> 1, 2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공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어 <조건> 3도 충족시키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조건> 1· 3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 <조건> 1·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 적절하지 못한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10. [출제 의도]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며'와 대구를 이루도록 하려면 ⓒ의 주어가 '그들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는 '자신의 선택이나 행위가'의 서술어로서, 전체 문장의 주어 '그들은'과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며'와 대구를 이루도록 고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는 '갖는지 알지 못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

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는 '얼마든지'가 맞춤법에 맞다. ② '회의'라는 말 자체에 '의심'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④ '권력의 시녀와 돈의 노예이다'와 '이념적 환상의 피해자가 된다'는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와 돈의 노예이다'는 '와'의 접속 대상이 불분명하여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다. 문맥으로 보아 ⓓ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며 이념적 환상의 피해자가 된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⑤ 문단의 마지막에 첫 문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진술하면 문단의 주제가 좀더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11. [출제 의도] 개요를 작성하고 수정하기
개요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이 개요는 '텔레비전은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장차 감소할 것이라는 진술을 개요에 포함시키는 것은, 내용 자체에 논리적인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결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제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답 피하기]
① 물론 서론의 수정하기 전의 개요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어구는 텔레비전의 위력을 강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서론을 보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② 수정하기 전의 본론 중에서 (1)과 (2)는 '텔레비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이며, (3)과 (4)는 '텔레비전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항목도 달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텔레비전의 장점을 소개해야 '적극적인 참여 촉구'라는 주제가 성립한다. ④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구체성도 높일 수 있다.

12. [출제 의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글쓰기
[자료2]는 우리말 상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료1]에 의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말 상호가 푸대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료3]을 통해 외래어를 고급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이 외래어 상호 증가의 원인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외래어 선호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13 ~ 17]
▶ 출전
(가) : 김영랑, < 독을 차고 >, (나) : 윤동주, < 쉽게 씌어진 시 >, (다) : 유치환, < 일월(日月) >

13. [출제 의도]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불의(不義)한 시대에 맞서서 자기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을 차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시이다. 여기에서 '독'이란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려는 강하고 독한 의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독'을 품기로 작정하는 이유는, 자기를 둘러싼 현실 상황이 마치 이리나 승냥이처럼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노릴 정도로 극악(極惡)하기 때문이다. (나)는 불의(不義)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한 뒤, 보다 치열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시이다. (다)는 '원수'라는 말로 상징되는 불의(不義)한 현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시이다. 설사 자신이 그러한 시대 현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태양만을 가슴에 굳게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 어떤 회한도 남지 않으리라고 비장하게 의지를 다지는 시인 것이다. 따라서 (가)(나)(다) 세 작품 모두 자기를 둘러싼 시대 환경에 맞서려는 대결 의지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② (가)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다.

14. [출제 의도] 내재적 관점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내적 의미만 주목한다'는 것은, 작품을 작가나 시대 상황, 독자 등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작품 자체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에서는 시어를 시 자체의 이미지나 시의 어조와 연결시켜 감상한 것이므로 내적 의미만 주목한 감상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② 이것은 시를 작품으로 해석하기 이전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를 시로서 이해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학 작품 감상 이전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설사 시 감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시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작품 외적인 요소를 끌어들여 작품을 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것은 독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를 준거로 시를 감상한 것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④ 이것은 시를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시킨 것이므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시를 시인이나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시키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이 혼재된 감상이다.

15. [출제 의도] 시상의 흐름 파악하기
어둠 속에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창 밖 풍경을 바라보던 시인은, 이러한 외부 풍경을 자신이 처한 암울한 시대 현실과 연관시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방 안으로 시선을 돌린 화자는, 자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좁고 폐쇄된 방 안의 모습에서조차 '남의 나라'에 종속된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아픈 인식은 곧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내면 성찰로 이어진다. 한동안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응시하던 화자의 눈은 다시 방 안의 풍경과 창 밖의 풍경이라는 외부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는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시선이 다시 외부 상황을 향하는 장면에서 시적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념과 새로운 삶에 의지를 다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8연이다. 1연과 8연은 동일한 시구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의 순서를 바꾸어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자신의 내면이 달라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16. [출제 의도] 시구의 의미 해석하기
<보기>의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은, 시적 화자와 시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시를 감상하라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나)의 시인인 윤동주에게 있어 '시를 쓰는 행위'는 불의(不義)한 시대 현실에 대응하는 행위이며, 참되고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시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를 좀더 치열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 좀더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기>에 나와 있는, '시란 자기를 고백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인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치열하지 못한 현실 대응의 삶'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조차 치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이기도 하다.
[오답 피하기]
④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윤동주에게 있어 시를 쓰는 일이란 자신을 반성하는 작업이자 불의한 시대에 맞서는 행위이다. 따라서 시를 '언어 유희에 불과한 미적 세계'라고 언급하고 있는 ④번 답지는 ㉠의 의미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17. [출제 의도] 다른 작품을 활용하여 시를 고쳐쓰기
(다)에서 '태양'이나 '일월'은 화자가 갈망하고 지향하는 대상, '의롭고 참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두 번째 행은, '그 의롭고 참된 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열망과 지향이 눈동자에 깊이 박혀 있을 정도로 굳센'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행을 '허무함'과 '원망'의 태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잘못이다.

[18 ~ 22]
▶ 출전 : 박종철 · 오충연, <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 >

18. [출제 의도]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기
이 글을 보면 사람이 개에게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하고, 개가 이를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도식화하기
언어는 자의적으로 결합된 상징 기호이며, 이러한 자의성과 분절성

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언어가 여러 음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의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의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언어는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자의성과 분절성이 결합되어 언어의 독자성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토대로 언어의 창조성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20. [출제 의도] 구성 요소의 기능 파악하기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인간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인간 언어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대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두에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인간 언어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출제 의도] 정보간의 관계 파악하기

㉠은 인간의 언어를 의미하며, ㉡은 동물의 의사소통은 되지만 언어는 될 수 없는 자연계의 음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모두 의사소통 수단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 분절성과 자의성을 지니고 있으나, ㉡에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 그리고 인간의 음성도 형식상으로는 자연계의 음향의 일부가 되지만, 언어로 쓰일 때에는 자연계의 음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음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①은 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22. [출제 의도] 적절한 어휘로 바꾸어 쓰기

ⓐ의 '받아들이다'는 '어떤 사실 따위를 인정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인식하다'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23 ~ 27]

▶ 출전 : 김영건, < 환원론과 전일론 >

23. [출제 의도] 문단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근대 과학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의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근대 과학을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특징을 밝히고 있다.

24. [출제 의도] 글의 사실적 내용 파악하기

①은 글(가), (나)에서, ③은 ㈏의 두 번째 문장에서, ④는 ㈑의 마지막 문장에서, ⑤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의 '객관적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근대 과학의 특징 때문에 ~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와 일치하지 않는다.

25. [출제 의도] 내용을 추리 상상하기

뉴턴은 근대 과학의 입장을, 카프라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연을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여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생각했던 근대 과학과는 달리 새로운 과학적 이론은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이 긴밀히 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 글 ㈐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카프라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④ 자연을 하나의 수단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점에서 근대 과학의 입장에 가깝다. ②·③ 두 입장 모두와 거리가 있다.

26. [출제 의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예를 생각하기

②에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배아 복제 기술이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학 기술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오답 피하기]

③ 과학 기술을 오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과학 기술을 오용한 결과가 아니다. ⑤ 윤리적 문제이다.

27.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 사실 추론하기

근대 과학이 과학기술문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모색했다는 내용을 통해 ③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등장했지만 근대 과학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과 맞지 않다. ②·④ 글에 그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근대 과학과 새로운 과학적 이론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28 ~ 31]

▶ 출전

(가) 작자 미상, <동동(動動)>, (나) 작자 미상의 시조, (다) 정철, <속미인곡>

28. [출제 의도] 작품의 공통점 확인하기

(가)의 시적 화자는 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시적 화자 역시 창 밖에 비치는 구름을 임이라 착각하고 달려나갈 만큼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시적 화자 또한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9. [출제 의도] 구절의 표현 기법과 의미 파악하기

임이 온 줄 알고 뛰어나왔으나 알고 보니 창 밖에 구름이 비친 것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해학성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이 구절에서는 자신을 달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0.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확인하기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극적 초월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모첨 찬 자리'는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쓸쓸한 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출제 의도] 생략된 구절 추리하기

'가까운 곳조차 알지 못하는데 천 리나 되는 먼 곳을 어찌 바라보겠는가'라는 구절은, 임과의 거리가 제시되면서 앞뒤 구절이 대조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앞에 쓰인 '산천이 어두워 일월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구절과 대구를 이루고 있어, 주어진 조건에 모두 맞는다.

[32 ~ 36]

▶ 출전 : 김성국, < 정보화와 민주주의 >

32. [출제 의도] 개괄적 정보 확인하기

본문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반대의 방향, 즉 민주주의의 성장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 [출제 의도] 논지 전개 과정 파악하기

글쓴이는 첫째와 둘째 문단에서 정보화와 민주주의라는 화제를 제시한 후, 셋째와 넷째 문단에서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는 두 가지 주장, 즉 낙관론과 비관론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문단에서는 두 주장을 절충하면서 독자의 바람직한 행동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4.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상은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으로, '아득히 멀다'라는 뜻의 '요원(遙遠)하다'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막연(漠然)하다 :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③ 적막(寂寞)하다 : 고요하고 쓸쓸하다. ④ 소원(疏遠)하다 :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다. ⑤ 냉엄(冷嚴)하다 : 태도나 행동이 냉정하고 엄하다.

35. [출제 의도] 적절한 사례에 적용하기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의 사례는 본문의 넷째 문단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문단에 의하면, 비관론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이 발

달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는 예상을 펴고 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개인 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노력인 ④가 통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36. [출제 의도] 정보의 의미와 관계 추리

포함적 정보와 개방적 정보 간의 관계를 견주어 본다면, ⓑ는 모으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개방적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개방적 정보'와는 달리, '배타적 정보'는 '한 사람의 정보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의해서 손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는 대체로 정치적 성격 혹은 독점적 성격을 띠는 정보들로서, 권력을 증대시키거나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정보이다. '배타적 정보'의 이러한 의미는 '개방적 정보'와의 차이가 부각되는 문맥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37 ~ 40]

▶ 출전 : 오영진, < 허생전 >

37. [출제 의도] 등장 인물의 행동에 나타난 특징 파악하기

'허생'이 의욕을 갖고 '도둑들'을 교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돈을 훔치러 온 '도둑들'이 자신들의 어설픈 도둑질을 비웃으면서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 '허생'에게 감복하고 있는 것이다.

38. [출제 의도] 다른 갈래로 표현하는 과정 추리하기

이 글에서 '도둑들'은 돈을 훔치러 왔다가 '허생'에게 들키는 것이지, 일부러 '허생'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39. [출제 의도] 상황에 적절한 속담 파악하기

'도둑들'은 돈을 훔치러 왔다가 돈짐과 씨름하며 쩔쩔매고 있다. '도둑들'은, "딴은! 첨 솜씨라……."라는 '두목'의 말과 같이, 도둑질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도둑질이 무척 서툰 것이다. 이 장면에서 '허생'은 ①(무슨 일이든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는 뜻)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도둑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어렵게 지내던 옛적을 생각지 않고 잘된 때에 호기만 부린다는 뜻. ③ 아무리 익숙하고 잘 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말. ④ 남의 사정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야 안다는 말. ⑤ 일껏 잘 하던 일도 더욱 잘 하라고 떠받들어 주면 안 한다는 말.

40.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으로 보아 '도둑들'은 가뭄과 물난리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노래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②(연극 '아리랑 고개(1929)'에서 불리었던 노래)이다. '우리네 살림살이'가 문제가 많으며 '문전옥답'을 잃고 '쪽박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상황은 ㉡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할 일이 태산 같이 쌓여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괴산 모심는 소리) ③ 가난을 한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고 권유하고 있다.(정선 아리랑) ④ 젊어서 인생을 즐기자는 낙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성 자진 아라리) ⑤ 임을 따라가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서도 아리랑)

[41 ~ 45]

▶ 출전 : 임석재, <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

41. [출제 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둥이 보여주는 미(未)가공성을 통해 전통 건축의 특성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서양의 해체주의 건축은 전통 건축의 특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⑤는 중심 내용이 될 수 없다.

42. [출제 의도] 개괄적 정보 확인하기

한국 전통 건축과 해체주의 건축은 모두 정형적인 규범에 반대하여 비정형적 건축을 추구한다. 여기서 정형적 규범이란 직선, 직각, 사각형 등으로 구성되는 기존 건축 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뜻한다. 따라서 한국 전통 건축이 안정과 질서를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셋째와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체주의는 인간의 현실 세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 해답 역시 해체라는 부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한다. ③ 첫째와 둘째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범종각과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은 모두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지어져 있다. 이들의 유사점은 바로 비정형적 건축을 추구하는 것임을 넷째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체주의 건축은 일부러 찌그러진 모습의 건물을 짓는다. ⑤ 넷째 문단에 언급하고 있듯이 전통 건축은 부정적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을 자연 속의 생명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조형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43. [출제 의도] 공통된 관점 추리하기

범종각이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프레드 앤드 진저 빌딩이 일부러 찌그러진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고뇌로 가득 찬 현실 세계'와 '늘 폭력과 전쟁 그리고 거짓이 난무'해 온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44.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범종각의 조형관으로, 여기서 자연 속의 한 생명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흰 나무를 그냥 흰 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③이다.

45.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 추리하기

글쓴이는 전통 건축 사상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고 있다. 곧 전통을 현재와 관련하여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6 ~ 50]

▶ 출전 : 작자 미상, < 장끼전 >

46. [출제 의도] 작중 인물의 태도 추리하기

장끼는 남존여비의 사고 방식을 가진 권위주의적인 가장으로 아내인 까투리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다. 장끼는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장끼는 콩을 먹을 욕심으로 콩이 놓여 있는 상황이나 까투리의 꿈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③ 장끼는 불길하다는 까투리의 견해를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다. ④ 장끼는 까투리의 꿈을 문관 장원으로 급제할 꿈이라는 둥, 승전 대장이 될 꿈이라는 둥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출장입상(出將入相)을 긍정적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장끼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⑤ 장끼는 콩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엔 죽음을 맞게 된다.

47. [출제 의도] 소재의 기능 이해하기

ⓐ '붉은 콩 한 알'에 대해 장끼와 까투리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 '눈 위에 사람 자취'는 꿩을 잡기 위해 덫을 놓은 인간의 흔적으로 장끼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지난 밤 꿈'에 대해서 장끼와 까투리는 길몽과 흉몽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와 ⓒ는 까투리가 콩을 불길하게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와 ⓒ에 대해서는 장끼와 까투리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장끼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유리한 쪽으로, 까투리는 불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와 ⓒ에 까투리의 헛된 욕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48. [출제 의도] 표현상의 차이 파악하기.

㉠은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 장끼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동물인 꿩의 동작이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에서는 까투리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동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49. [출제 의도] 상황에 따른 등장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까투리는 불길한 예감으로 콩을 먹지 말도록 장끼에게 간곡히 당부했지만, 장끼는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콩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덫에 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남편을 잃은 까투리의 절망적인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④의 <공무도하가>이다. ④의 화자는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으나 임은 결국 물을 건너 죽음에 이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유리왕의 <황조가>로 임과 이별한 외로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②는 황진이의 시조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③은 서경덕의 시조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⑤는 정지상의 <송인>으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애달픈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50.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다른 갈래로 표현하기
장끼는 권위주의적인 가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다가 결국 덫에 치여 죽게 된다. 이를 보아 장끼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다가 죽은 것은 아니므로 ⑤는 내용 전개상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51 ~ 55]
▶ 출전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51.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제시된 장면은 세 사람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여관에 들어온 때로부터 다음날 아침 '나'와 '안'이 죽은 사내를 뒤로 한 채 여관을 떠나 헤어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작중 인물인 '나'의 입을 통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② 간결한 대화체를 주로 구사하고 있으며, '스물 다섯 살이죠?', '두려워집니다.' 등 문장 그 자체에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④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등장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⑤ '어두운 골목길', '적막한 거리', '찬바람',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싸락눈', '앙상한 가로수' 등 다양한 배경 요소들이 작중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2. [출제 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이 글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 의식 상실과 인간 소외,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③과 같이, 세 사람이 여관에 들어간 것을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53. [출제 의도] 발화에 담긴 인물의 태도나 정서 추리하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이라는 '안'의 진술을 통해, 약의 용도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위해 준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4. [출제 의도] 작품을 새로운 갈래에 적용하기
작품의 분위기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인물들 간의 대화 내용이나 아저씨의 죽음이라는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쓸쓸함'이다. 여관은 사건을 둘러싼 공간적 배경이므로, 이러한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허름한 곳'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화투'는 실제 작중 사건 전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여관방은 규격화된 공간일 뿐이며, 이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은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④ '적막한 거리', '찬바람', "몹시 춥군요." 등에서 을씨년스러움이 느껴지므로, 오히려 다소 어두운 조명이 어울린다. ⑤ '나'와 '안'은 아주 무덤덤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인사만을 나눈 채 헤어지고 있다.

55. [출제 의도] 등장 인물 간의 심리적 태도 추리하기
㉮에서, '아저씨'는 "혼자 있기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와 '안'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안'은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저씨'와 '나'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

[56 ~ 60]
▶ 출전 : 손영식, < 인간의 본성은 악한가 >

56. [출제 의도] 논지의 핵심을 파악하기
이 글의 결론은 마지막 문장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성선설과 성악설은 '단순히 인간이란 어떠하다는 인간론을 넘어서'는 문제로서, '어떤 계층의 권력 장악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57.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넷째 문단에서 성선론자들은 지식인이 국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식인이 도덕적 이성과 인격을 함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성선설에서는 통치의 원동력을 '도덕적 이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성악설에서는 다섯째 문단에 진술되어 있듯이 '인간의 바깥', 즉 '예, 법과 권력, 하느님'이라는 요소에서 통치의 원동력을 찾고 있다. 요컨대 통치의 원동력을 성선설에서는 인간 내부에서, 성악설에서는 인간 외부에서 찾는다.

58. [출제 의도] 유사한 발상 파악하기
㉠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 대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충이 야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해충의 습성을 파악한다는 ②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요인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다. ③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④ 상대의 악의에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상대를 포용함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⑤ 욕구를 억누름으로써 그 욕구가 일으키는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59. [출제 의도] 반론의 근거 찾기
㉡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바로 그 다음 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악설의 관점에서는 지식인도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국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60.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는 선악과 관련되는 일의 뜻이므로 ㉤의 의미를 가지며, ⓑ는 '성선설이 다루는 연구 대상'이라는 뜻이다.